

지 역 경 제 일 지

<p>12.17</p>	<p>▷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, 대전 중심 경제생활권 확대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토부 주관으로 ‘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 방안’에 대해 철도기술연구지원센터에서 설명회가 개최 — 주된 내용은 현재 권역별 중심지 반경이 40km에서 50km로 확대하는 것으로, 중심지 반경이 확대될 경우 거리 기준에 따라 대전권은 세종 전의(경부 상), 충북 영동(경부선 하) 및 익산 함열(호남선 하) 까지 거리 기준을 충족 — 또한 금번 개선방안에 시간 기준(시·종점~중심지 인접 역사 통행 시간 60분 이내)이 추가되어 거리기준 또는 시간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광역철도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열차 속도를 높일 경우 대전역~천안역, 대전역~김천역, 서대전역~익산역까지도 광역철도 구축이 가능할 수 있으 것으로 여겨짐
<p>21</p>	<p>▷ 충남도, 중소기업 복지 격차 해소 ‘박차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조성에 나섬 — 21일 덕산 스피라스리솜에서 5개 시군 및 62개 중소기업과 ‘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(2호) 추진 업무협약’을 체결 — 각 기관은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·운영, 참여 사업장 발굴, 복지기금 출연 등 행·재정적 지원 조치 등에 협력할 것을 약속
<p>29</p>	<p>▷ 세종시, 코로나로 피해 큰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종특별자치시가 예비비 등 시 자체 예산 67억 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2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. —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·영업제한을 이행하거나 매출이 10%이상 감소한 업종으로 지정된 경영위기 소상공인임 —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은 각 200만 원, 영업제한 업종은 각 100만 원, 경영위기 소상공인은 각 50만 원